

情報化 先進國 되자

김 진 흥

(KDC정보통신(주) 사장)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공인받는다 할 수 있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가입이 정식으로 금년(1996)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OECD에 가입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물론 무역, 외환, 노동, 환경등 모든 제도의 평가를 거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그 기준에 합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OECD 가입조건으로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다면 어떠한가를 한번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다. 정보 인프라 구축수준, 국민의 정보화 의식수준, 정보화를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의 정보화 질적수준, 정보시스템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유통질서, 그리고 이들을 포괄하는 관련 제도 등을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항목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면 OECD 가입에는 시간

이 좀 더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사회이든 정보화사회이든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의 질이 어떠한가가 종합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민생활의 질의 향상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그 승패를 걸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보강국을 향해 국가정보화 전략을 발표하고 정보 인프라 구축계획의 구체적 추진전략으로 전국 도시를 광통신망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조기 완성하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누적된 비효율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화 사회의 끝자락에서 겨우 턱걸이로 선진국 클럽에 끼어드는 아쉬움을 정보화 사회에서는 하루속히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에서 인정받는 선진국가, 선진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함께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